DIA

정현아 / Dia Architecture co.
by Chung, Hyuna

dialogue, diagram 등에 쓰이는 접두사 'dia-'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through, across, between 등으로 설명된다. 즉, 사이나 관계, 혹은 과정의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의미를 가진다.
건축사사사무소 디아(dia)건축은 바로 이러한 관계적 가치를 지향한다. 일상 속에 숨어있는 크고 작은 스케일의 수많은 관계망(網)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일상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사회 상의 투영, 혹은 그 정황들에 관심을 가지고, 복잡 다단해지는 현대 사회의 다중적 상황을 명확하면서도 풍부하게 담아내는 공간체계로 완성하고자 한다.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복합적이면서 열린 가능성을 만드는 공간 패턴의 제안과 그것을 물성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적 연구를 목표로 두고 있다.
관계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것은 건축에서 다루는 가치가 좀 더 동적(動的)인 것으로 옮겨가는 혹은 확대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단지 여러 요소들을 조형적으로 조합하는(Compositional)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상황에 맞게 주제와 조건들을 설정하는(Conditional) 방법을 통해 그 가치를 질문하는 것이다. 결과로 구축된 스타일이 아니라, 과정의 방법적 연구 또는 그 상황적 성격 스스로가 건축적 의미를 가지는 이유이다.

복합 체계 – 단순 구법 Complexity, Simple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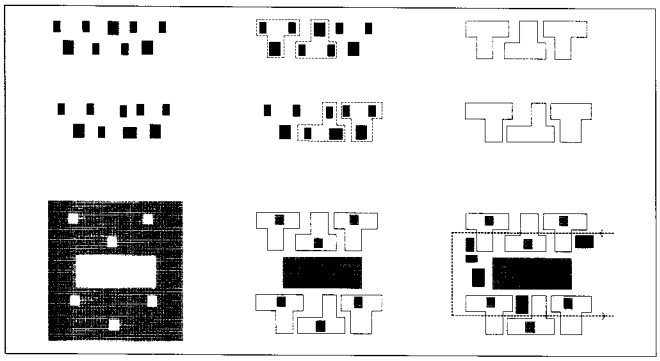
종종 현대사회의 다중적 성격을 반영하는 공간체계는 상반된 여러 가치가 공존하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지녀야 하기에 혼성된 양상으로 드러나기 쉽다. 하지만, 복잡한 것(Complicated)과 복합적인 것(Complex)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복잡'은 다수의 가치가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지 않아 혼돈스러운 것이고 '복합'은 다수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열린 체계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복합적인 공간체계는 상대적인 가치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반응하는 유연한 모델이 되어야 하기에, 그것의 구축방식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요구한다. 즉, 공간의 가변성, 사용자에 반응하는 환경 등을 허락하는 보다 유연하고 가벼운 해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물적 대상을 통하여 구축되는 건축은 그 스스로가 태생적으로 단단하고 강한 속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복합적인 체계는 가능한 최대로 단순한 해법, 가벼운 구축으로 구현하려는 지속적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축은 물적 대상 그 자체로 대화하므로, 무엇보다 물성 자체의 새로운 실험과 연구가 가장 강력한 도구라 믿는다. 재료에 대한 관심은 온전히 새로운 재료에 대한 실험만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재료를 다른 방식으로 축조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외부 재료를 내부에 사용하는 등의 관습적 사용을 넘어서는 시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재료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즉,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공간체계의 가장 단순한 방식의 구현과 공법을 탐색하고 있으며, 바로 재료, 에너지 효율 등의 여러 분야를 통합하는 단순 명쾌한 해결방식의 탐구와 관심이 가장 진보적이며 지속 가능한 건축의 실현이라 믿는다.

약자 건축 Minority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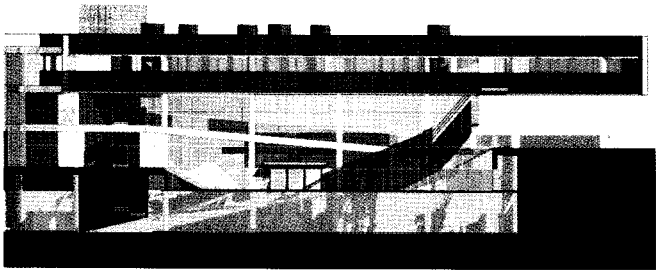
현대는 거대 담론, 대형 개발, 그리고 스타 건축가가 요구되는 시대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라서 오히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틈새들에 주목하고 있다. 작지만 가치 있고, 소외되어 있지만 잠재력 있는 도시 건축작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규모는 작더라도 취하는 전략에 따라서 그 스스로 건강한 힘을 가지고, 나아가 도시에도 변화의 촉매제로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건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벡터가 되는 작지만 강한 건축의 가능성을 보고, 이러한 도시 약자의 건축적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믿는다.

Project 1. 용인 독수리학교,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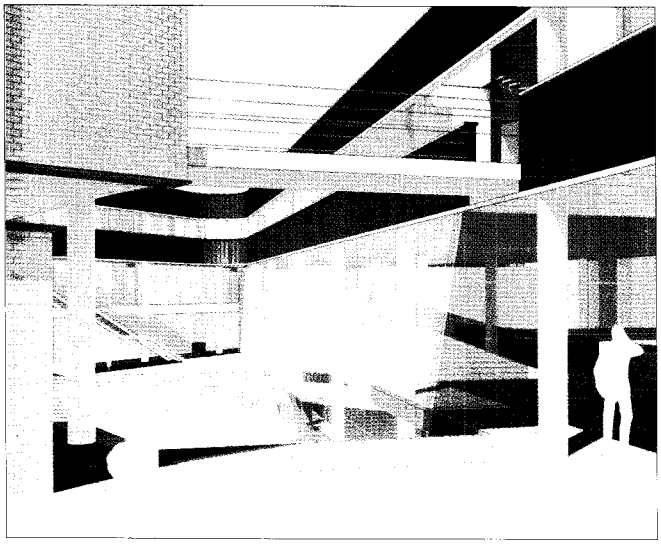
용인 독수리학교 제안의 경우는 대안학교의 교육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스터디에서 출발하였다. 소규모로 출발한 모임이 점점 그 서클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다시 분화시키며, 또다시 소모임을 시작하여 계속해서 커다란 조직으로 키워내는 것에서 '성장하는 클러스터(Cluster)' 모델을 생각하였다. 교실 군(群)은 개별학습과 모둠학습의 두 개의 다른 교육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체계여야 했다. 학년간 혹은 학년별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교실 체계를 제안하였다. 생성되는 방식도 여러 크기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또한 다시 전체적으로는 공용공간과 결합되면서 느슨한 고리(Loop)를 형성하게 된다.
학교의 성격을 큰 틀 안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수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지 외부로는 조금 배타적이되 안마당을 향해서는 내-외부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대지의 레벨도 인공적으로 두껍게 다루어 건물과 외부공간, 지면의 다양한 차이를 통해 수많은 시선 교차를 만들어 크고 작은 열린 관계들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1〉 독수리학교 클러스터 다이어그램



〈그림 2〉 독수리학교 입면



〈그림 3〉 독수리학교 입구부분

Project 2. 평창동 주택,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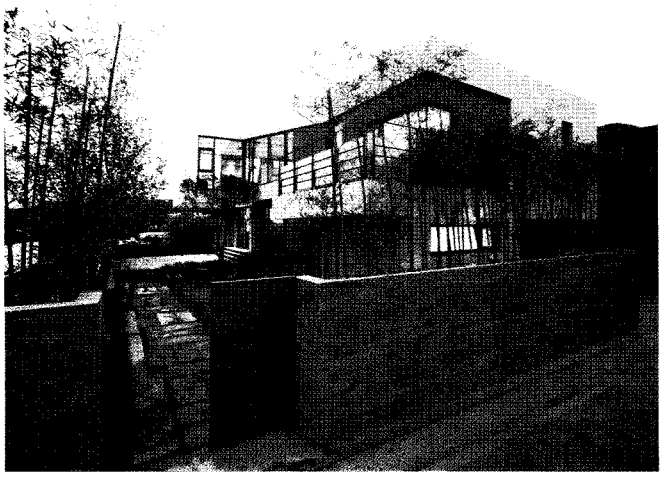
평창동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의 조건들과 얼마 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혼자 사는 건축주의 라이프스타일도 그렇고, 대지 남쪽은 가로막히고, 북쪽은 수려한 북한산으로의 조망이 가능한 조건도 그러했다. 1인 주거라 공간의 위계보다는 각 실들의 개성이 중요하였고, 실들의 독립성보다는 개방감을 살려야 했다. 각 공간은 가족 누군가를 대변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쓰임에 따라 느슨하게 규정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일조방향과 완전히 상반된 대지의 전망을 어떻게 내부 공간구조와 연계할 것인가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따라서, 진입도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망이 가장 좋은 거실까지 오르는 선형 동선체계의 변형에서 전체 공간체계를 취하였다.

대지 진입에서 앞마당과 데크공간을 거쳐 2.5층으로 들어올려진 거실로 서서히 오르는 동선을 대지 가운데 배치시켰다. 그리고, 그에 매달린 각 실들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양호한 대지 모서리로 놓아, 실들은 동선의 연속된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각기 성격이 다른 외부공간으로 확장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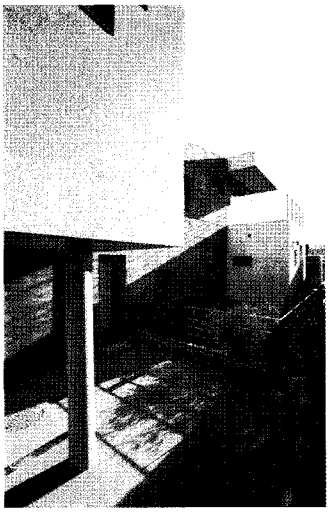
스킵된 레벨과 돌출된 매스, 다양한 외부공간으로 대지 안쪽에서는 시선을 재빨리 다른 공간으로 유도하고, 대지의 모서리에서는 시선을 사방으로 확장하려 하였다. 되감기는 동선과 교차하는 시선으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여, 내-외부공간은 서로가 서로를 이끌도록 설정하였다.

Project 3. 신사동 근린생활시설,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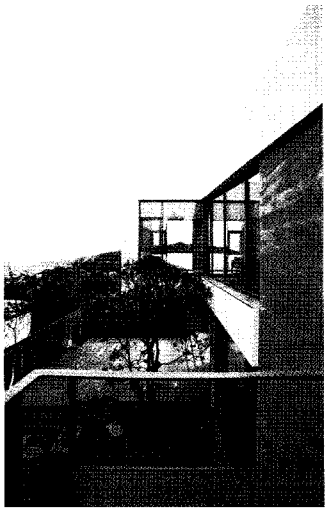
신사동 근린생활시설은 상층부 주거를 가지는 임대건물로, 강남 뒷골목에 위치하였다. 고밀도-좁은 대지에서 피하기 힘든 사선 매스의 한계와 주변 다세대와의 충돌, 임대시장의 불확정성, 주거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안고 있었다. 이에 동선방식을 층마다 약간씩 다르게 설정



〈그림 4〉 평창동주택 전경



〈그림 5〉 평창동주택 후면



〈그림 6〉 평창동주택 거실 돌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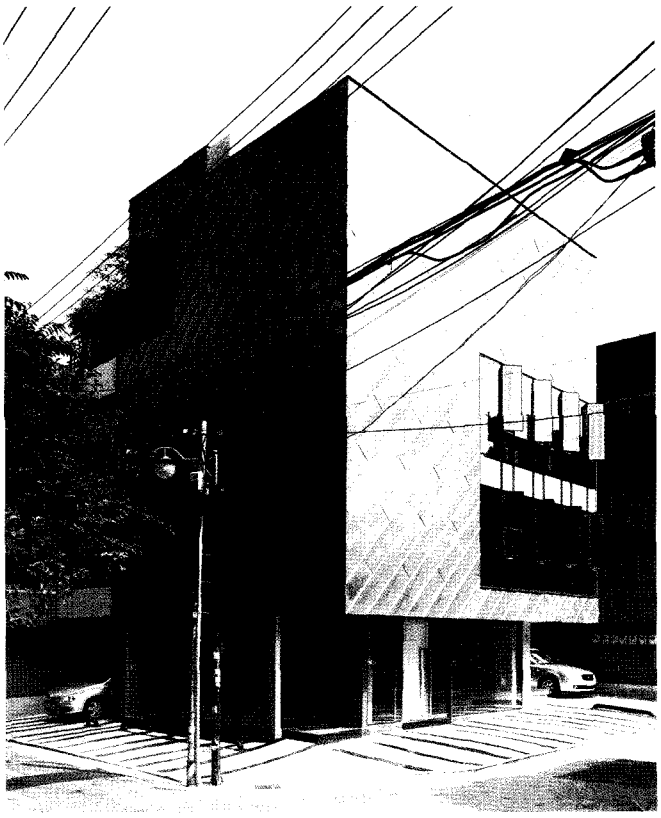
하였다. 저층부에선 매스와 외피 사이로 끼어든 일자계단으로 도로의 움직임을 2층까지 자연스레 연장하고, 3층에선 기능적인 코어 방식으로 슬며시 바뀌었다가, 4, 5층에 이르면 다시 속도를 늦추면서 주택 내부로 이어진다. 하나로 이어지는 동선이지만 반복적이지 않아 속도의 완급이 가능하고, 각층의 공간과 만나는 방식의 차이로 층마다 차이 나는 도시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였다.

다세대와의 충돌은 동판으로 감싼 폐쇄적 외피에 텍스춰를 주어 완화하고, 주거층에는 중정을 놓아 내부로의 오픈을 극대화 하였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집이라 주방-식당은 축소하였고, 실들의 구분은 모호하게, 위계는 동등하게 풀었다. 이러한 딱딱한 껍질에 대비되는 유연한 내부구성은 건물의 성격을 보다 중성적으로 만들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용할 여지를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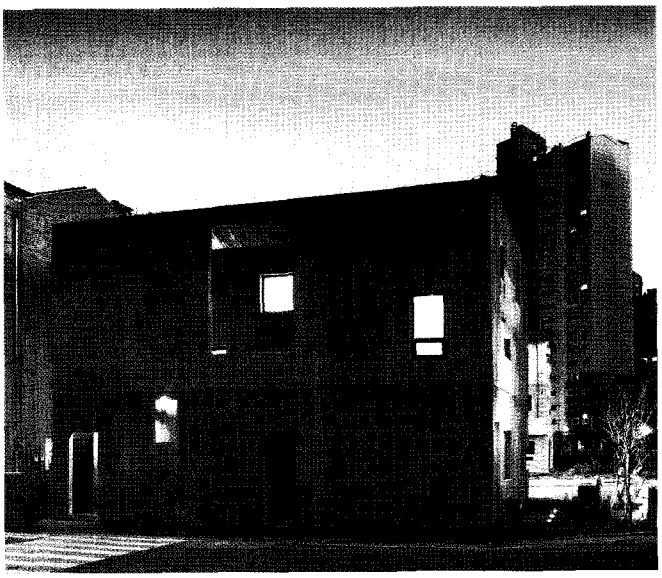
Project 4. 대전 한의원주택, 2009

대지는 신도시 아파트 주변부에 들쑥날쑥 들어선 상가와 나대지 사이에 위치하였다. 경사지붕이 법규로 요구되었지만, 우리는 안쪽으로 모이는 경사지붕을 취하여 밖으로는 최대한 원초적인 형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외부로는 고집스레 막힌 듯 보이나 2층 마당을 통해 내부로는 개방적인 방식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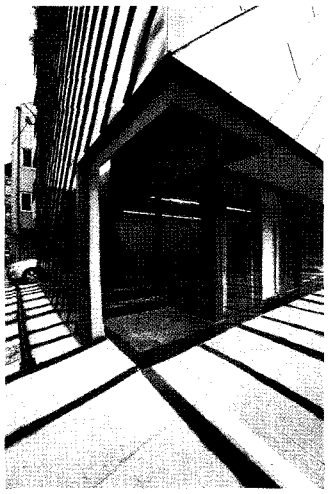
1층 한의원에선 시선의 수평적 흐름으로 기능적인 동선을 유도한 반면, 2층 주택은 경사지붕으로 확보한 높은 천장고와 고창을 통해 다방향으로 시선을 분산하면서 동선과 시선을 최대한 깊고 멀리 가져가게 하였다. ㄷ자 평면 형식을 통해 LDK 부분이 침실 부분과 분명히 구분됨과 동시에 서로 마주보며 경계를 허문다. 외관과 한의원은 부뚜막 같이 거칠고 투박한 물성을 만들려 했고, 주택은 밝고 부드럽게 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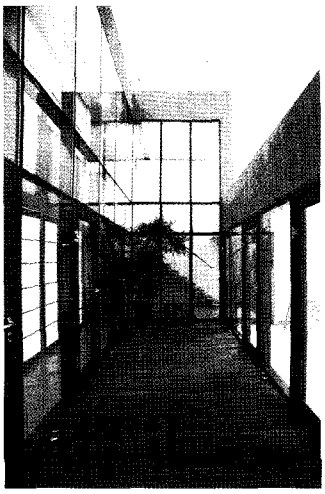
〈그림 7〉 신사동근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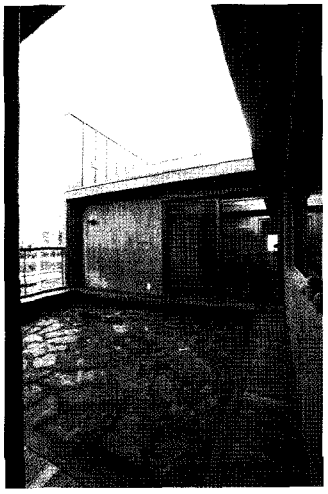
〈그림 10〉 대전한의원주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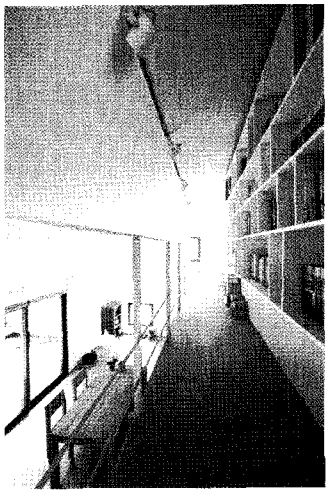
〈그림 8〉 신사동근생 계단입구



〈그림 9〉 신사동근생 주거부



〈그림 11〉 대전한의원주택 안마당



〈그림 12〉 대전한의원주택 주택실내